일 오염수 방류 '초읽기'…일식집·횟집 '초비상'

상인들 "수산물 소비 급감 불보듯…피해 얼마나 될지 감도 안잡혀"
"대출로 버틴 코로나 3년인데…올 여름 못버틴다" 대책 마련 촉구

"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회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먼저 업종 변경을 권하는 단골들도 있어 심란합니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논란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로 국산 어패류를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A씨의 업장은 그 어느 곳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예약이나 손님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이곳에서 30년간 일식집을 운영해 왔는데, 이 같은 걱정거리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IMF와 금융위기, 코로나19까지 버텨냈는데 이런 악재는 처음이다"며 "단골 손님들 입에서 업종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것은 결국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허탈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방류가 시작되면 해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건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상인들은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B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오염수 방류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손님이 줄었다"며 "아직 방류 전인데도 이런 상황이면, 방류 후 매출은 뻔하다"고 말했다.

B씨는 "원전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갑론을박도 너무나 심해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피해가 예상되면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인들은 3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견뎌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들이닥친 악재에 울분을 토했다.

광주시 서구 마륵동에서 회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암울한 코로나 시기 대출과 빚으로 버텨왔다"며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탄했다. 그는 "같은 업종 상인들 사이에서는 '올 여름 버티지 못하겠다'며 폐업하겠다는 얘기마저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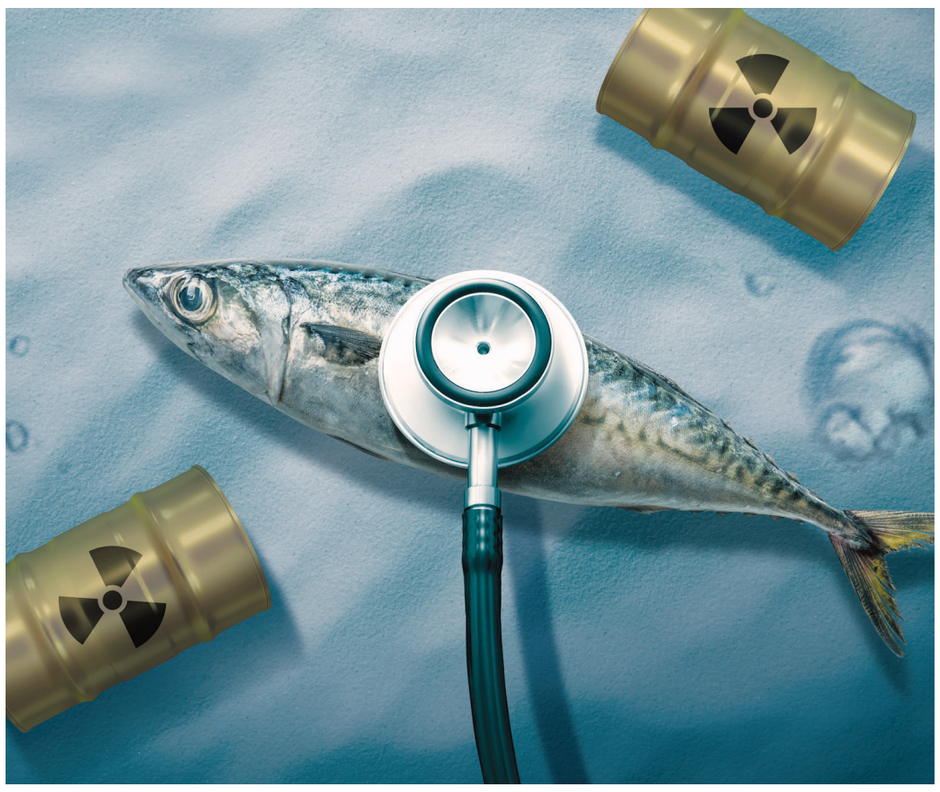
한편 정부는 국내 수협 위판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는 앞으로 경매 시작 전에 검사를 완료하겠다고도 밝혔다.

특정 시기에 어선이 조업하는 곳과 많이 잡히는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어선이 입항하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선 한 척에서 검사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 품목이 잡힌 동일 해역, 같은 시기에 다른 어선이 잡은 수산물도 안전하다는 것을 대표해서 증명한다"며 "위판장별로 어느 요일은 고등어 검사, 어느 요일은 갈치 등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벤처스, 미래 첨단시장으로 영역 확장…AI 기업 첫 투자

페르소나AI·배터와이에 20억씩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효성벤처스㈜가 인공지능(AI) 강소기업에 투자하며 미래 시장 공략을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에 나선다.

효성벤처스는 국내 AI 분야와 배터리 분야의 강소기업인 ㈜페르소나AI와 ㈜배터와이 2곳에 각각 20억원씩 투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섬유, 화학, 중공업, 신소재 등 글로벌 제조 시장에서 No.1 기술을 확보해 온 효성이 제조 부문을 넘어 AI 등 미래 첨단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미래 신사업 육성 전략에 따른 것이다.

효성벤처스가 투자한 페르소나AI는 한국 최초 클라우드 기반 대화형 AI솔루션을 개발한 업체로 무인으로 전화를 받고 채팅을 하는 콜봇, 챗봇 등의 AI컨택센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효성ITX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배터와이는 전기차 및 ESS(에너지 저장 장치)의 BMS(배터리 진단 시스템)를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배터리의 셀 단위 상태 정보를 제공, 배터리 생애 전주기를 진단하는 서비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의 ESS 사업부문과 협업을 기대할 수 있다.

효성벤처스는 첨단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라는 산업부의 펀드 결성 목적에 따라, AI 기술이 융합·적용된 업체들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효성벤처스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펀드 위탁 운용사로 선정됐다. 올해 3월 효성벤처스가 10억원, 효성그룹이 300억원, KIAT가 200억원을 출자해 총 510억원 규모의 '효성 씨브이씨 스케일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펀드를 결성했고, 이번 투자가 첫 번째 운용 프로젝트다.

조현준 회장은 "효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성의 제조 기술을 혁신해 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미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강소기업들과 상생하는 동시에 제조기업을 넘어선 첨단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경총, 오늘 1609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이영욱 연세대 교수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호원 회장)는 23일 오전 7시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연회장에서 1609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영욱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인간과 우주'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영욱 교수는 미국 예일대학교 천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연구원, 예일대 천문학과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NASA 공로표창장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이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전제로 천문학 연구의 목적에 대해 강연한다.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회를 시작한 이래로 33년 간 매주 금요일마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시대적 현안을 주제로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기업CEO와 지역민의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받을 만큼 전국적으로 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금요조찬포럼은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광주경총 총괄사업본부 전화(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 하반기 중기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증액

700억 등 올해 2500억 지급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600억원 보다 100억원 늘어난 것이며, 올해 상반기 지원액 18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25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체 등도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3억원 한도다. 다만,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시비로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기업은 1%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이자 1%를 추가 지원한다. 우대 기업에 해당하며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최대 4%의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하반기 자금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심사 이후 광주은행을 비롯한 국민, 산업, 스탠다드차타드(SC), 하나, 우리, 신한, 기업, 부산, 농협(중앙회),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3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윤미라 창업진흥과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지원규모와 이자보전을 확대했다"며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해양에너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 구입

(주)해양에너지는 최근 광주시청을 찾아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 100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해양에너지는 임직원 및 지역민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입장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과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구매한 입장권은 임직원과 지역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회 대표이사는 "물 흐르듯 자유롭고 지역민들이 치유 받는 전시가 되길 기원한다"며 "해양에너지도 내년 비엔날레는 회사 순찰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농가 일손돕기 진행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22일 광주시 광산구 선동의 매실 재배농가에서 농가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매실 수확기에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샤롯데봉사단은 이날 5000여평 매실밭에서 매실을 직접 수확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도왔다.

매실 농장주인 양영이(60세)씨는 "늦어도 25일까지는 매실을 수확해야 하는데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수확기에 직접 농촌을 찾아 일손을 보태주시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2018년부터 본량농협, 광주농협과 연계하여 매실, 감, 포도 등 수확기 지역 농가의 일손을 돕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김대홍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장은 "수확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가 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 '전력정보 에너지맵' 공개

전력사용량·재생 에너지 보급 현황 등 정보 제공

한국전력은 전력과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력정보 에너지맵'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력정보 에너지맵은 지역별 전력사용량과 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등 전력분야에 특화된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을 약 1000만개의 격자로 분할해 가공, 융합한 데이터를 지도에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전력사용량 맵 ▲재생에너지 맵 ▲전력 녹색맵 ▲전력 탄소맵 등 크게 4가지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전력 관련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전은 에너지맵이 소비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정부와 지자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에게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승 한전 디지털솔루션처장은 "앞으로 에너지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설치 지원을 위해 에너지맵의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93.70(+11.07)
↑	코스닥	876.38(+0.68)
↑	금리 (국고채 3년)	3.592(+0.021)
↑	환율 (USD)	1294.90(+2.90)